

어머?

상관없다 외면하는 똥. 기다란 복도를 걸어가다 문을 열고 사라지고

**하윤주**

하마 우리 확인! 715호. 반복한다. 715호.

**황반장(E)**

꽃돼지 나오고 다람쥐 들어간다.

날쌔게 원숭이의 택시에 올라타는 다람쥐. 뒷좌석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로비**

편지함에서 우편물을 챙기는 다람쥐. 하윤주와 비슷한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은 모습. 하윤주. 다람쥐와 스치며 짹! 가볍게 하이파이브를 한다.

**하윤주**

스타일 겹친다. 선배.

**다람쥐**

후배님. 유행은 들고 도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 쓱쓱~ 7층 버튼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다람쥐.

### 69. 지휘 뱅. 밤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하윤주. 차에 올라타면

**황반장**

잘했어.

**하윤주**

그쵸? 현장 체질인가봐~!

신이 난 모습에 어이없이 하는 황반장.

**황반장**

어쭈? 지랄이 풍년이다~

**복도**

담뱃갑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반쯤 구겨버리는 다람쥐. 휘익~ 획! 복도 곳곳을 짹싸게 이동하며 화분. 비상구 표시등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 70. 사무실. 밤

똥의 집을 마주 보는 빈 사무실.

모니터와 각종 기계들을 설치하는 타조. 두더지. 독사. 원숭이. 앵무새.

오피스텔 복도를 비추는 여러 대의 모니터들.

모니터 1 - 다람쥐. 보온병을 든 섹시녀를 스치며 반한 듯 돌아보는 모습.

모니터 2 - 카메라에 대고 '워~!' 가슴이 유난히 크다는 시늉을 하며 사라지는 다람쥐.

감시반들에게 믹스커피를 하나씩 타주는 하윤주.

커피를 받아 든 앵무새. 정색을 하며 똥의 성대모사를 한다.

**앵무새**

너 흑시...

하윤주  
네?  
앵무새  
커피도 타는 여자?

구석에 앉은 황반장. 킁킁대는 감시반들과 뺑한 표정의 하윤주를 보며

황반장  
애틀왔냐? 대성리아? 춘천이야?

혀를 차며 손에 쥔 알약을 삼키면 어느새 다가와 물을 건네는 하윤주.

황반장  
왜 앵무이야? 나 차별해?

하윤주  
커피믹스. 봉지당 46 칼로리. 카제인나트륨은 없지만 절대 옳지 않습니다.

팟! 커피를 뺏는 타조. 잠시 당황하다 웃음이 전염되는 감시반들.

## 71. National Foods. 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커다란 정밀지도와 새로운 건물설계도. 사진들. 메모들.

제임스

...

구식 소파에 앉은 제임스. 특유의 무표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바라본다.

## 72. 사무실. 낮

똥의 집을 감시하는 캠코더 화면. 두꺼운 커튼이 쳐진 모습.

모니터 - 보온병을 든 섹시녀 2. 똥의 집에서 나오는 섹시녀 1과 어색하게 스친다.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보는 황반장과 하윤주. 황반장. 안경을 벗고 눈을 지압하기 시작하고

하윤주  
언니들만 왔다~ 갔다~. 딱 보니 잠수 타는 거네.

기지개를 펴는 하윤주. 기름 낀 황반장의 안경을 손수건으로 닦는다.

황반장  
뺨치기도 감시반 고유의 업무야. 켄 안테나. 망보는 놈이 뭘 알겠어?  
발정난 하마 잡아 봤자 저기서 끝. 백 프로 꼬리가 끊기는 법이지~

황반장. 지도보드 위 하마모양 자석을 잡는다.

황반장  
“잡을 수 있어도 잡지 않는다.”  
사냥감이 무리로 돌아갈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뺨치고 쫓는 거지.  
설령 지구 끝이라 할지라도...

스윽~ 하마모양 자석을 밀면 다른 자석들이 끌려와 척!척! 붙는다.

황반장

전문용어로 일망타진.

'오호~!' 신기해 하는 하윤주. 사무실을 나가는 황반장을 보며

하윤주  
어디 가십니까?  
황반장  
데이트.

### 73. 오피스텔. 낮

로비에 서 있는 묘령의 여인.

황반장(OFF)  
해숙이 등생 영숙이?

돌아보는 이실장. 찰랑거리는 머리.

이실장  
시끄럽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형사들과 엇갈리는 두 사람.  
이실장. 불륜 포스로 스윙~ 황반장의 허리를 감싸며 밀착하고

우웅~ 닫히는 문. 이실장. 실실 웃는 황반장을 냉정하게 밀쳐버린다.

오피스텔  
폴리스라인이 쳐진 살인현장.  
푹! 푹! 볼펜으로 황반장의 목과 명치를 찌르는 송팀.

송팀  
경동맥. 명치. 정확하게 두 번 찌르고 끝.

적! 잡지책으로 명치를 막는 황반장. 퍽! 송팀의 뒤통수를 날리며 현장을 둘러보고  
현관. 거실바닥에 흩어진 루미놀시약의 혈흔반응들.

송팀  
숨씨나 뒤통수가 수준급이고  
옆 건물이 삼화회계법인. 피해자는 사건 터진 날 연락두절.  
이주 그냥 삼위일체로 구리지 않습니까?

이실장. 고개를 돌리면 실눈을 뜬 황반장이 노트북을 보고 있다.

모니터 - 옷을 갈아입는 오피스 걸의 사진들.

이실장  
왜? 회춘이라도 하셨어?

대꾸없이 창가에 서는 황반장. 삼각대 자국이 패인 카펫 바닥과 맞은 편 건물을 살피며

황반장  
나무만 볼게 아니라 숲을 봐야지!  
송팀  
에?  
황반장

부주의 맹시! 여인네 말고 창틀, 커튼을 보라고.  
저 건물 꼭대기 층이잖아. 여기서 란제리 쏘 찍은거고.

모니터 속 사진과 건너 편 건물, 카펫 바닥을 번갈아 가리킨다.  
이실장과 송팀. 잠시 생각하다 놀라는 표정.

**이실장**  
욕상?  
**황반장**  
그치. 이 놈이 리더야.

창을 열면 도시의 소유이 방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욕상을 바라보다 아래 쪽 도로를 내려보는 황반장. 미소를 지으며 중얼중얼

**황반장**  
전지적 작가시점이라... 멋져. 맘에 들어.

### 74. 오피스텔. 밤

속옷차림. 초체해진 똥. 현관문을 열며 얼굴이 환해지고

**똥**  
초코야...

짹~! 껌을 씹는 까만 피부의 초코.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보온병을 건넨다.

**초코**  
최부장이 출장비 받아오라고 지랄이니까 알아서 해!

보온병을 여는 똥. 동그랗게 말린 메모를 대충 확인하며

**똥**  
그래. 좋께! 다~ 좋께! 어여 벗자.

시간경과

옷을 입는 초코. 빵을 문 채 자고 있는 똥을 췌려본다.

**초코**  
먹고. 싸고. 쳐 자고. 기특하다. 기특해.

구두상자에서 돈다발 세 개를 챙기는 초코. 현관을 나서며 쓰레기 봉투를 챙기고  
쿵! 현관문 소리에 눈을 뜨는 똥. 입에 문 빵을 씹으며 다시 눈을 감는다.

**똥**  
쿨한 년...

담뱃갑 카메라 시점 - 복도를 걷는 초코. 양 손 가득 쓰레기봉투를 든 모습.

**주차장**  
끼익~! 분리수거장에 멈추는 지휘 밴. 라텍스장갑을 낀 하운주가 내린다.

### 75. 사무실. 새벽

테이블 위에 쓰레기를 뒤집는 하운주. 마스크를 쓰며 다양한 오물을 분류하기 시작하고

하윤주  
으...

팔짱을 낀 황반장.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에 인상을 구기며

황반장  
이노무 칼로리들... 최악이야. 옴지 않아!

순간. 번뜩이는 눈. 직! 하윤주의 손을 잡는다.

하윤주  
???

한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황반장. 콘돔을 밀어내며 잘게 찢긴 종이조각을 집어내는 모습.

황반장  
5분 안에 맞추면 꽃사슴으로 바꿔준다.

하윤주  
뭐... 꽃돼지도 좋는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다 슬며시 고개를 돌리는 하윤주. 빨리 쳐다보며

하윤주  
정말?  
황반장  
10초 경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하윤주. 조각들을 맞추는 손. 꽃사슴을 향한 엄청난 집중력.

하윤주  
몇 분???  
황반장  
4분 31초...  
하윤주  
진짜?

[04: 31]이 찍힌 스톱워치를 리셋 시키는 황반장. 태연하게

황반장  
14분 31초.

에라~! 장갑을 벗어 바닥에 팽개치는 하윤주.

잘게 찢긴 종이가 다시 맞춰진 모습. 만년필로 답이 매겨진 스토쿠 페이지다.

황반장  
스토쿠라...

고개를 숙인 하윤주. 순간. 번뜩이는 눈빛. 황반장. 역시 날카로워지는 표정.

황반장 / 하윤주  
답이 틀려.

## 76. 정보분석실. 새벽

송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며 6 개의 숫자가 조합된 프린트를 정보팀들에게 나눠준다.

**송팀**

경우의 수가 720 개니까 그냥 120 개씩 쳐보자!

검색창에 숫자조합을 치는 정보팀들. 각종 검색결과들이 디폴브 되고

시간경과

모니터 검색창에 뜬 추가정보와 회사소개. 숫자 조합은 [바이오메디컬]의 종목 번호다.

**송팀**

새끼들... 참 버라이어티 해요...

### 77. 도심거리. 낮

오피스텔을 나오는 똥. 후~ 담배 연기를 뿜으며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든다.

**택시**

운전석의 원송이. 담배를 문 채 뒷좌석에 타는 똥을 보며

**원송이**

어디 가실까요?

**똥**

성수동.

**원송이**

성수동 어디?

**똥**

성수동.

**원송이**

네~ 성수동도 가시고 당배도 태우시고~ 출발합니다~!

**거리**

멀어지는 택시를 보는 하윤주. 이어지는 황반장의 무전.

**황반장(E)**

전원 이동. 놀이터를 옮긴다.

급정거하는 지휘 밴. 하윤주를 태우고 다시 출발하면 거리에 섞여있던 감시반들 역시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한다.

### 78. 성수동 폐공장. 낮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다람쥐와 앵무새.

**다람쥐**

확인 들어갑니다.

다람쥐. 날렵한 동작. 천정에 달린 창으로 소형카메라를 올린다.

### 79. 통제실. 낮

모니터에 뜬 폐공장 내부. 테이블에 둘러 앉은 특공일행이 보이고

좁다란 환풍구 속 두더지. 환풍구 틈 사이로 마이크를 설치하고 볼륨을 높인다.

삐~ 잡음이 울리는 스피커. 이어지는 특공의 목소리.

**특공(E)**

이번엔 데이터만 카피하면 돼.  
휴일이라 직원들도 없고. 경비만 조심하면 되고.

모니터 - 특공과 함께 지도를 보는 일행들.

이전 범행현장 사진과 모니터 속 특공일행을 비교하는 송팀. 이실장을 돌아보며

**송팀**

여섯 확인됐습니다.

**이실장**

잠시 대기. 앵무새. 타조. 주변 상황체크.

**앵무새(E)**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계단**

폐공장이 보이는 계단참에 위치한 타조. 캠코더 화면과 주변거리를 둘러보며 무전을 보낸다.

**타조**

여기도 이상무.

**폐공장**

도주로를 표시하는 특공. 허수아비는 등산용 로프와 클램프를 정리하고 있다.

**특공**

똥. 엠쓰리. 고혈압이 안테나.  
나. 허수아비. 스쿠프가 옥상에서 내려간다.

**고혈압**

먼 일인데 일당이 열 배가 튀어?  
이거 중요한 기술이니 특허니 그런 거 넘기는 거야?

**엠쓰리**

첫 빵부터 사고를 치셨으니 끝까지 왕따를 당하는 거지.

**고혈압**

뭐야? 넌 알아? 니들도 알아?

동료들을 둘러보는 고혈압. 실실 웃는 모습들에 빈정이 상한 듯.

**통제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살피는 이실장. 지도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키며

**이실장**

이거 통화 중이야?

송팀. 전화기를 들어 단축번호를 누른다.

## 80. 전동차. 낮

한적한 전동차 안. 구석에 서 있는 제임스. 이어폰에 울리는 특공의 고향.

**특공(E)**

또 시작이야? 정신 못 차렸어?!!!

**고혈압(E)**

왜 승질을 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임스.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끈다.

**통제실**  
정보팀과 통화 중인 송팀. 수화기를 막으며 돌아본다.

**송팀**  
통화 중 맞습니다. 방금 전원이 꺼졌는데  
마지막 신호는 2호선 지하 중계기입니다.  
**이실장**  
연구센터 근처에 2호선 있지?

### 81. 지휘 밴. 낮

씨익~ 웃으며 하윤주를 보는 황반장.

**황반장**  
그림자 등장.  
우리 둘 뿐이야. 정신 바짝 차려!

하윤주. 자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통제실**  
마이크를 들고 명령하는 이실장.

**이실장**  
좋아! 송골매. 꽃돼지는 그림자를 찾고  
놈들은 현장에서 검거한다.  
분석실. 통화기록 따고. 검거팀 5분대기. 통제실은 위치추적 허가 신청해!

빠른 비트의 음악이 시작되며

### 82. 도심도로. 낮

도심을 달리는 특공일행의 승용차 두 대와 뒤를 쫓는 감시반의 차량들.  
오토바이를 탄 두더지. 특공일행이 나눠 탄 승용차를 스치며

**두더지**  
도착 5분 전.

### 83. 도심거리. 낮

주변을 의식하며 걷는 제임스. 길 건너 택시에 올라타는 타조를 본다.

**제임스**  
...

순간. 제임스를 스치는 지휘 밴.

**지휘 밴**  
황반장. 리시버를 챙기다 사이드미러를 보던

황반장의 시점 - [바이오메디컬] 건물을 지나 골목으로 사라지는 제임스의 뒷모습.

지도를 보던 하윤주가 소리친다.

**하윤주**  
시야가 확보되는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주변 건물보다 높구요.

#### 84. 통제실. 낮

급박하게 무전이 오가는 통제실.

**통제녀**  
바이오메디컬 1 조. 도주로 2 조. 배치 완료.  
타깃 도착 3분 전.

#### 85. 빌딩 로비(교차). 낮

황반장과 하윤주. 각각 다른 빌딩입구로 달려 들어간다.

**로비 1**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한 눈에 들어오는 화장실 입구.

**하윤주**  
자리 잡았습니다.

**로비 2**  
비상계단 안에서 문을 열고 있는 황반장. 로비의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번갈아 보며

**황반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여자일 수도. 노인일 수도 있어.

무전을 들으며 긴장하는 하윤주. 로비의 사람들을 신중히 살핀다.

#### 86. 빌딩 옥상. 낮

제임스. 무전스캐너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  
치익~ 노이즈가 이어지다 평범한 경찰 교신이 잡힌다.

**제임스**

...

이전 보다 신중한 느낌. 망원경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망원경 시점 - [바이오메디컬] 안을 순찰중인 보안요원들. 주변의 차들과 사람들.  
망원경 시점 - 멀리 택시에서 내리는 타조. 옷을 갈아입은 모습.

타조를 주시하는 제임스. 미간을 찌푸리며 스캐너 다이얼을 미세하게 돌리기 시작한다.

치직. 치익~ 심한 노이즈와 함께 이어폰에 울리는 목소리.

**독사(E)**  
곧 사... 지난다. 오십... 사... 삼십...  
**제임스**  
!!!

제임스. 망원경을 돌려 사거리를 보면

망원경 시점 - 신호를 받아 사거리에 진입하는 특공일행의 승용차.

옥상 위에 서 있는 제임스의 부감 숫.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

계단을 달리는 제임스. 휴대폰을 꺼내 단축버튼을 누른다.

### 87. 도심도로(교차). 낮

[바이오메디컬 첨단기술 연구소] 간판을 스치는 특공일행의 승용차.

승용차 1

우웅~ 전화를 받으며 당황하는 특공. 창 밖을 보면  
신문을 보는 벤치의 앵무새. 짧은 순간 특공과 눈이 마주친다.

**특공**  
계획 취소!!!

골목

독사. 통화 중인 특공과 승용차 2에 취소 신호를 보내는 똥을 본다.

독사의 시점 - 부양~ 속도를 높여 [바이오메디컬] 건물을 지나치는 승용차 1. 2.

**독사**  
행동을 취소했다. 현재 조수석 1명 통화 중.

달리는 승용차 1. 2. 서로 흩어지면 감시반 차량들 역시 흩어져 뒤를 쫓는다.

### 88. 통제실. 낮

모니터에 뜬 통화로그를 보는 송팀.

**송팀**  
아까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실장**  
위치 추적 시작해!

모니터 -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며 삼각측량을 시작하는 프로그램.

### 89. 빌딩 로비(교차). 낮

멈춰있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번갈아 보는 하윤주. 긴장한 표정.

**황반장(E)**  
놈들이 눈치챘다. 꽃돼지! 상황보고!  
**하윤주**  
엘리베이터는 멈춰있습니다. 현재. 비상계단 주시 중.  
**황반장(E)**  
명심해. 따라붙기만 하는거야.

쿵쿵! 비상계단을 달리는 제임스.

비상계단 입구를 보는 하윤주. 초조한 표정.

순간. 뭔가를 느낀 듯 벽에 귀를 대는 황반장. 쿵쿵! 다급한 발소리가 벽을 울리고 있다.

**황반장**  
여기야!

주먹을 불끈 쥐는 이실장과 빌딩 밖으로 달리는 하윤주의 교차.

**비상계단**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제임스. 조용히 숨을 고르며 2층 계단참에 멈춰선다.  
계단 아래를 내려 보는 눈. 날카로운 표정.

황반장. 사라진 발소리에 역시 날카로워지는 표정.  
숨 막히는 고요함. 순간. 위층에서 끼이익~ 문 소리가 들리고

**황반장**  
!!!

**복도**  
달리는 제임스. 창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면 빠직! 금이 가기 시작하는 유리.  
퍽! 몸으로 창을 부수며 부웅~ 창 밖으로 몸을 날리는 제임스.

### 90. 통제실. 낮

스피커에 울리는 발소리와 거친 호흡.

**이실장**  
송골매! 상황 보고해!!!

**복도**  
깨진 유리창 앞에 서 있는 황반장. 주차장을 내려 보면  
지붕이 부서진 승용차. 사람들이 웅성대는 모습.

**황반장**  
건물 밖으로 도주 했다. 휴대폰 위치 확인하고,  
꽃돼지! 주차장으로 달려!!!

뒤돌아 계단을 향하다 다시 몸을 돌리는 황반장. 망설임 없이 창 밖으로 몸을 날리고  
거리를 달리는 하윤주. 방향을 틀어 빌딩 사이 골목으로 들어간다.

**통제실**  
모니터를 보는 통제녀. 위치추적 장치에서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다.

### 91. 골목. 낮

머리 위 카메라를 피해 방향을 트는 제임스. 잔뜩 긴장한 표정.

**주차장**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는 하윤주와 황반장.

**통제녀(E)**  
송골매 위치에서 50미터. 197 D 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황반장**

이 새끼... 걸고 있어.

두 사람. 팔목 양 갈래로 빠르게 흩어진다.

**통제실**

핫라인 전화를 들고 통화중인 이실장.

**이실장**

여섯 확보했고 리더는 쫓는 중입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초조한 표정.

**이실장**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이크를 든다.

**이실장**

감시반. 5분 대기. 검거팀. 행동 개시!

부양~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검거팀의 밴들.

## 92. 도심도로(교차). 낮

신호제어기를 조종하는 다람쥐. 교통경찰복을 입은 모습.

**다람쥐**

통제 시작. 다람쥐 송골매와 합류하겠습니다.

빨간 불로 바뀌는 거리 곳곳의 신호.

달리는 검거팀. 철침이 박힌 체인을 도로 위에 펼친다.

**승용차 1**

고가도로를 달리는 특공의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는 검거팀 밴. 조수석의 검거팀장이 정지신호를 보내면

**엠쓰리**

꼭 잡아!

헨들을 꺾는 엠쓰리. 팡! 밴을 들이받는다.

크게 흔들리는 검거팀 밴. 옆 문을 열며 몸을 내미는 검거 1. 타이어에 총알을 날리고  
펑! 타이어가 터지며 미끄러지는 승용차 1.

가드레일을 긁으며 스파크를 일으키다 아슬아슬 난간 끝에 멈춰 선다.

로프와 볼러램프를 꺼내는 특공. 엽총을 꺼내 철격! 총알을 장전하는 허수아비.

**사거리**

펑! 도로 위 철침에 타이어가 찢어지며 미끄러지는 승용차 2.

한 쪽으로 몸이 쏠리는 스쿠프와 고혈압. 어지럽게 흘러가는 창 밖 거리.

승용차 2. 팡! 가로등에 처박히며 멈춰선다.

**고가도로**

총구를 낮추고 뱅에서 내리는 검거팀들.

**승용차 1**

의자에 로프를 묶는 특공. 난간 너머로 로프를 던지며

**특공**

할 수 있지?

롤러클램프를 받는 엠쓰리. 긴장한 표정.

찰칵! 클램프를 로프에 거는 허수아비. 엽총을 특공에게 던진다.

**허수아비**

밑에서 보!

끄덕이는 특공과 똥. 휘익~ 총구를 돌려 탕!탕! 총을 쏘기 시작한다.

땡! 쟁그랑! 타이어가 터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검거팀 뱅.

뱅 뒤로 몸을 숨기는 검거팀들.

부웅~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엠쓰리와 허수아비. 로프를 타고 고가 아래로 내려가면

끼이익~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쏠리는 차체.

**통제실**

탕! 탕! 스피커에 울리는 총소리와 다급한 목소리.

**검거팀장(E)**

차 안 2명 엽총 소지.

다른 2명. 로프를 타고 고가 아래로 도주합니다.

초조한 듯 엄지 손톱을 깨물며 통제남을 보는 이실장.

**이실장**

미친새끼들... 아래 누가 있어?

**통제남**

원숭이. 맹무새. 3분 거리. 검거팀은 곧 도착합니다.

**고가도로**

탕! 탕! 총을 쏘며 차에서 튀어나오는 특공과 똥.

이어지는 검거팀의 대응 사격. 탕! 탕! 탕! 쏟아지는 총알들.

부웅~ 고가 아래로 몸을 던지는 똥. 웅사를 하며 뒤늦게 점프를 하는 특공.

순간. 총알이 스친 로프 하나가 똑! 끊어진다.

**도로**

고가 밑을 걷고 있는 제임스. 멀리 총소리가 울리는 쪽을 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무언가.

후두둑~ 힘없이 떨어지는 로프. 허공에서 추락하는 똥. 팡! 승용차 지붕에 처박힌다.

뒤늦게 착지한 특공. 피떡이 된 똥을 보다 멀리 인도에 서 있는 제임스와 눈이 마주치고

제임스. 처음으로 보이는 당황한 얼굴. 특공일행들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하면

짧게 고개를 가로챘는 특공. 순간. 제임스의 뒤에서 검거팀 서너 명이 총을 꺼내며 스친다.

검거팀에 제압되는 특공과 허수아비. 엠쓰리.

**제임스**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는 제임스. 무섭게 굳어버리는 표정.

사거리  
연기를 뿜는 승용차 2. 바닥에 엎드린 고혈압과 스쿠프. 검거팀에 제압됐다.

#### 검거 2

사거리. 상황 종료. 2명 생포.

#### 통제실

스피커에 울리는 검거팀장의 무거운 목소리.

#### 검거팀장(E)

고가 상황. 3명 검거. 1명 추락. 사망 한 듯 보입니다.

대형 모니터 - 고가 밑과 사거리 상황들이 보이는 CCTV 화면.

모니터를 보며 아랫입술을 깨무는 이실장. 통제녀를 향해

#### 이실장

그림자는?

#### 통제녀(E)

신호가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93. 청계천. 낮

주변 빌딩의 회사원. 관광객들이 가득한 청계천.  
청계천을 걷는 제임스. 벤치 주변 커피를 마시는 정장남들 사이에 섞여 앉는다.

스노쿠책을 펼치며 주변을 살피는 눈. 집중이 안 되는 듯 답을 썼다 지웠다 신경질적인 모습.

#### 모전교

다리 위를 달리는 하운주. 난간에 기대 청계천을 내려 보며 호흡을 가늠다.

#### 하운주

도착했습니다.

#### 황반장(E)

나도 왔어.

마주 보이는 광통교에 도착하는 황반장.

### 94. 통제실. 낮

뚜~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 통제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다.  
입술을 뜯으며 중얼거리는 이실장.

#### 이실장

받아라... 받아...

#### 청계천

우웅~ 진동하는 휴대폰. 제임스. 모르는 번호에 날카로워지는 표정.

#### 광통교

난간에 기대 황반장. 오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본다.

**황반장**

지금부터 전화 받는 사람 확인해!

**모전교**

빠르게 움직이는 하윤주의 눈과 툭툭, 툭, 움직이는 손가락, 중얼거리는 입.

**하윤주**

행인 4명, 벤치 2명...

통화 중인 사람들 사이로 벤치에 앉은 제임스가 스친다.

**침계천**

전화를 받는 제임스의 뒷모습.

**통제녀(E)**

여보세요? 제가 차를 빼다가 선생님 차량 살짝 부딪혔어요.

굵힌 덴 없는 거 같은데 전화는 드려야 할 거 같아서요.

여보세요? 들고 계세요?

**제임스**

...

제임스.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으면

뚜우~뚜우~ 종료음이 울리는 스피커. 이번엔 통제남이 수화기를 들고

다시 진동하는 휴대폰. 제임스. 태연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사람들을 다시 살피는 하윤주.

주머니 속. 휴대폰 배터리를 뽑았다 다시 끼는 손.

전화를 꺼내는 사람들을 주시하는 황반장.

제임스. 전원이 꺼진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하는 척 벤치에서 일어선다.

**통제실**

모니터 속 위치추적화면. 깜박이던 붉은 점이 사라지면

**통제녀**

신호가 사라졌다. 신호가 사라졌다.

**광통교**

황반장. 건너편 하윤주를 보며

**황반장**

누가 전화를 받고 끊었지?

**모전교**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답하는 하윤주.

**하윤주**

검은 모자를 쓴 20대. 그 뒤로 지나가는 썬글라스...

벤치 앞 통화 중인 검은 옷. 세 명입니다.

**침계천**

사람들을 헤치며 걷는 제임스. 초조한 표정. 주변을 살피는 눈.

## 제임스

...

째깍! 째깍! 흘러가는 시간. 모두가 행인 같고 모두가 의심스럽다.

## 광통교

황반장, 가방을 챙겨 일어서는 제임스를 본다.

## 황반장

저 놈이다!

## 모전교

놀라는 하윤주.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 황반장(E)

3시 방향. 검은 옷. 가죽가방. 현장에서 봤어!

## 하윤주

!!!

하윤주의 시점 - 광통교 밑 터널로 사라지는 제임스의 모습.

## 통제실

광! 책상을 치며 일어서는 이실장.

## 황반장(E)

그림자가 황학동방향으로 간다. 지원 부탁해.

## 이실장

아직 현장 정리 중이야. 다람쥐가 가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

골목으로 들어가는 제임스, 황반장, 하윤주의 교차.  
제임스, 이리저리 방향을 틀다 휴대폰을 부러뜨린다.

## 95. 벼룩시장. 낮

인파에 묻힌 제임스. 주변 모두를 경계하는 날카로운 시선.  
각종 소품을 파는 가게. 물건을 고르는 척 제임스를 보는 하윤주.

하윤주의 시점 -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제임스의 얼굴.

중고시계방. 어지럽게 걸려있는 각종 시계들 앞에 선 제임스. 가게 안 거울로 뒤를 살피고  
거울 속 사람들 사이로 스치는 황반장의 모습.

제임스, 의심이 깊어지는 표정. 사람들을 제치며 빨라지는 걸음.

## 벼룩시장 골목 1

골목을 걷는 제임스. 쇼윈도에 스치는 실루엣에 획! 몸을 돌리면 서너 명의 평범한 사람들 뿐.  
모퉁이에 숨어있는 황반장. 옆으로 풍선을 든 꼬마와 엄마가 지나가고 있다.

## 황반장

지금부터 꽃돼지가 붙는다. 송골매는 지휘 댄서 백업하겠다.

## 벼룩시장 골목 2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하윤주. 담벼락에 막힌 골목. 난처한 표정.

**하윤주**  
 골목이 복잡해서 파악이 힘들니다.  
**황반장(E)**  
 하늘을 봐!

빠른 걸음으로 아이를 스치는 황반장. 풍선 줄을 놓치는 아이의 손.  
 하윤주. 고개를 들면 하늘 위로 풍선이 보이고

**하윤주**  
 !!!

방향을 잡은 하윤주. 끼익~ 멈춰서는 차들 사이를 뛰어 넘어 죽어라 달린다.

**96. 도매시장. 낮**

차들이 길게 정체된 도로. 파란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  
 우두커니 선 제임스. 주변을 의식하는 눈.

점점 줄어들던 보행신호가 빨갱게 변하면

차들을 멈춰 세우는 제임스. 길을 건너며 뒤를 살핀다.  
 노점 앞의 하윤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하윤주**  
 그림자. 무단횡단 중. 놓칠 거 같습니다. 따라붙을까요?  
**황반장(E)**  
 안 돼. 노출 돼.

순간. 이어몰드에 울리는 반가운 목소리.

**다람쥐(E)**  
 다람쥐 도착! 제가 붙겠습니다.

하윤주의 시점 - 건너편에 등장하는 다람쥐. 제임스를 쫓아가고 있다.

**골목**  
 제임스를 부르는 목소리.

**다람쥐(OFF)**  
 아저씨! 아저씨!

돌아보는 제임스. 경찰복을 입은 다람쥐의 모습에 표정이 굳는다.

**다람쥐**  
 신분증 주세요. 보행신호 위반. 범칙금 2만원 되겠습니다~

**지휘 밴**  
 나무늘보. 길게 막힌 도로를 보며 인상을 구기고

**황반장**  
 신분만 확인하고 보낼 꺼야. 그 뒤론 꽃돼지가 다시 붙는다.

**골목**  
 다람쥐.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는 제임스를 재촉하며

**다람쥐**  
 교대 시간인데... 없어요?  
**제임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마주치는 두 사람의 눈빛, 애써 태연한 표정들

**다람쥐**  
 단말 찍으면 되니까, 주민번호라도 불러주세요.

다람쥐, 허리춤 단말기를 꺼내며 고개를 들면

**다람쥐**  
 !!!

휘익~ 만년필을 꺼내 달려드는 제임스. 다람쥐의 목에 펜촉을 박는다.

### 97. 통제실. 낮

다급히 울리는 무전.

**하윤주(E)**  
 다람쥐가 쓰러졌다! 다람쥐가 쓰러졌다!!!

벌떡 일어나는 이실장.

**황반장(E)**  
 정확히 보고해!  
**하윤주(E)**  
 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몸싸움 중인 다람쥐와 제임스. 달리는 차들 사이로 보였다 가려졌다 반복하는 모습.

### 98. 골목. 낮

목에서 피를 뿜는 다람쥐. 계속되는 두 사람의 몸싸움. 제임스, 목에 박힌 만년필을 뽑아 명치를 깊숙이 찌르면

**다람쥐**  
 음!!!

다람쥐의 입을 막는 제임스. 서늘한 표정. 스윙~ 만년필을 뽑으며 몸을 일으킨다.

**노점**  
 빠르게 달리는 차들. 길을 건너지 못하는 하윤주.

**하윤주**  
 다람쥐가... 다람쥐가 칼에 찔렸습니다.  
**황반장(E)**  
 그림자는? 그림자는 어딴어?

**통제실**  
 당황한 이실장, 소리친다.

**이실장**

구급차 불러! 꽃돼지! 그림자를 쫓아가! 놓치면 안 돼!!!

**황단보도**

빠앙~! 클락손 소리. 차들을 세우며 무작정 길을 건너는 하운주.  
골목으로 사라지는 제임스와 피를 쏟는 다람쥐를 번갈아 보며 망설인다.

**이실장(E)**

응답해! 응답하라고!!!

피를 뺨는 상처를 누르는 하운주.

**하운주**

괜찮아? 괜찮아?

창백해진 다람쥐. 피를 토하며 뭐라 말하려 하고

**하운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99. 도심도로. 낮**

지휘 뺨에서 내려 죽어라 달리는 황반장.

**황반장**

꽃돼지! 응답해! 그림자를 쫓아!!!

**이실장(E)**

응답해! 상황보고 하라고!!!

**통제실**

고함치는 이실장. 팡~! 마이크를 집어 던진다.

**이실장**

응답하라고!!!

**100. 골목. 낮**

다람쥐와 하운주를 둘러싼 행인들. 웅성대는 사람. 신고를 하는 사람.  
제킷을 벗어 상처를 누르는 하운주.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오는 피. 눈물이 고이는 눈.

**하운주**

힘내 선배. 조금만... 조금만...

씨익~ 미소 짓는 다람쥐. 눈에 초점이 풀리며 경련을 시작하면 목직한 손이 상처를 덧누른다.  
무전을 보내는 황반장. 벌개진 얼굴.

**황반장**

다람쥐 위독! 경부대동맥 손상. 상복부 자상. 구급차 멀었어?!

**이실장(E)**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황반장**

꼭 막고 있어!!!

떨리는 하운주의 손을 다잡아 주곤 골목 끝으로 달린다.

날이 선 황반장. 주변 상점들. 건물 옥상을 살피며 골목을 달리는 모습.

대로 변  
골목을 빠져 나오는 황반장. 주변을 둘러보며 난처함이 스치는 표정  
인도와 차도에 가득한 사람들과 차들. 한눈에 복잡해 보이는 풍경.

**황반장**  
씨발...

황반장. 쓰레기통을 걷어차기 시작한다.

### 101. 통제실. 낮

꽝! 꽝! 스피커에 울리는 황반장의 고함과 소음.

**황반장(E)**  
이런 씨발~~~!!!

고개를 숙이며 인상을 쓰는 이실장. '후~' 짧게 한숨을 쉬며

**이실장**  
작전종료. 전원 복귀할 것.

통제남. 굳은 표정으로 녹음기를 끈다.

### 102. 상가계단. 낮

문 닫힌 지하상가의 계단 참. 어둠 속에서 들리는 숨소리.

**제임스**  
후~

호흡을 고르는 제임스. 스욱~ 옷깃으로 얼굴에 땀 피를 닦는다.

### 103. 병원. 밤

복도에 모여 있는 감시반원들. 무거운 침묵.  
창백한 얼굴의 하윤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손에 벌겋게 핏물이 배어있다.

수술실을 나오는 황반장과 이실장.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이실장**  
의식 없고. 면회금지다.  
난 본청에 보고 들어가니까 다들 여기서 퇴근해.

하윤주. 이해 할 수 없단 눈으로 이실장을 보면

**이실장**  
왜?  
**하윤주**  
그림자는 포기하는 겁니까?

이실장. 차가워지는 표정.

**이실장**

니가 놓친 놈을 어디서 찾지?  
알해봐. 나도 잡고 싶어 미치겠으니깐!

**하윤주**

**이실장**

동료를 구한 걸 탓 할 사람은 없어.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했지?  
아무 답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황반장을 보며 화를 누르는 이실장. 무거운 표정의 감시반들을 돌아본다.

**이실장**

감시반은 노출 됐고 그림자는 놓쳤다.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야.

**시간경과**

텅 빈 복도에 남은 황반장과 하윤주. 무거운 침묵.

우웅~ 진동하는 휴대폰. [발신자 내사과 개재].

황반장. 지친 표정으로 전원을 끄면  
눈물을 흘리는 하윤주. 크게 심호흡을 하며 쓴웃음을 짓는다.

**황반장**

이게 우리 일이야. 이 정도로 흔들리면 어떡해?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면서 해내야지...

하윤주를 다독이는 황반장.

**하윤주**

무서웠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하윤주. 생각이 깊은 듯. 순간. 등 뒤에서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  
회복실에서 뛰어 나오는 간호사. 피범벅이 된 가운. 의사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

멍하니 바라보는 하윤주의 얼굴 위로 쿠궁~! 천둥소리가 울리고

#### 104. 구둣방. 밤

창 너머로 보이는 행인들의 다리. 거세게 바닥을 치는 빗방울.  
구두를 수선 중인 정통. 우웅~ 휴대폰이 진동한다.

**제임스(E)**

접니다.

**정통**

지금 어디야?

#### 105. 골목. 밤

골목을 걷고 있는 제임스. 우산에 반쯤 가려진 얼굴.

**제임스**

마무리 할 일이 있어서요.

구둣방  
표정이 굳은 정통. 고개를 돌리면 창 밖에 멈춰서는 제임스의 구두가 보인다.

정통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너... 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고개를 숙이는 제임스. 빗방울이 튀는 구두를 보며 씩씩히 웃는다.

제임스  
궁금하지 않습니다.

구둣방  
역시 씩씩히 웃는 정통.

정통  
그래... 여길 처음 왔을 때도 똑같았지.  
다른 놈들이랑 달랐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키는 일은 빈틈이 없었고.

제임스(E)

...

정통  
뭘 망설여? 마무리 확실히 해야지.

골목  
기리를 보며 잠시 고민하는 제임스.

제임스  
네.

구둣방  
짱! 복도 끝 서터에 처박히는 사내. 코너를 돌아 나와 구둣방을 향해 걸어오는 제임스.  
자리에 앉는 정통. 상가복도의 제임스.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의 교차.

지하상가  
드르륵~ 서터가 열리며 튀어나오는 사내들. 제임스를 덮치기 시작한다.

퍽! 퍽! 칼과 주먹을 막으며 반격하는 제임스.  
정통에게 시선을 고정 한 채 사내들을 헤치며 한 호흡으로 전진하고

구둣방  
와장창! 사내의 몸에 박살 나는 유리문.  
사내를 밀치며 구둣방 안으로 들어오는 제임스. 차가운 눈으로 정통을 노려보면  
순간. 따르릉~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정통.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 수화기를 들었다 다시 끊어 버린다.

정통

...

제임스

...

선반 위 연장을 집으며 정통에게 다가서는 제임스.

푸욱~ 정통의 뒷통수를 파고드는 송곳.

눈을 부릅뜨는 정통. 천천히 굳어버리는 얼굴.

시간경과

구둑방울 나오는 제임스.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뚜벅! 뚜벅! 멀어지는 발소리.

## 106. 국과수. 밤

시체 안치실의 황반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실장을 본다.

이실장

귀신같이 사라졌어.

사실 카메라까지 다 털었는데 분석실도 더는 우리래.

'후우~' 무거운 한숨. 감정을 누르는 이실장.

이실장

그리고 우리... 이 사건에서 올스톱 먹었다.

황반장. 다람쥐가 안치된 냉동고 손잡이를 움켜쥔다.

황반장

쫓까지 말라고 해. 그 새끼... 우리가 마무리 해야 해.

부들부들 떠는 손. 눈시울이 붉어지며

황반장

여기 춥다. 오래 두지 말자.

창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 무거운 황반장의 뒷모습에서 화면 페이드 아웃.

## 107. 오피스텔. 아침

우웅- 우웅- 압전 상태에서 들리는 휴대폰 진동.

하윤주. 멍한 표정. 창에 기대 동이 뜨는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하윤주

...

툭. 툭툭. 유리창을 치는 손가락. 출근길의 사람들과 오가는 차량들을 보는 눈.

진동이 멈추는 휴대폰. 액정에 찍힌 [발신자 송골매] 부재중 전화표시.

## 108. SJ 홀딩스. 아침

회의실. 기다란 테이블에 앉은 내사과 사내 세 명.

마주 앉은 황반장. 휴대폰 전원을 끄며 덩그러니 놓인 마이크를 본다.

황반장

시작하시죠.

내사 1. 파일을 펼치며 신호를 주면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손.

**내사 1**

내사번호 35-7102. 1급 정보 유출 건에 관하여  
현 서울경찰청 특수범죄과 반장. 황상준의 청문을 시작합니다.

사내의 목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녹음기 이퀄라이저.

**내사 2**

3년 전 2009년 5월 15일. 오전.  
시사주간 김현석 기자에게 대공 사찰 정보를 넘겼습니까?

**황반장**

아닙니다.

**내사 1**

부인하는 겁니까?

**황반장**

아닙니다.

**내사 2**

지금 뭐 하자는 거죠?

**황반장**

15일이 아니라, 14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 2시였습니다.

불편을 들어 날짜와 시간을 정정하는 내사 2. 불쾌한 표정.

**내사 1**

그럼 인정하는 겁니까?

**황반장**

네.

황반장. 차분한 목소리. 답답한 표정.

**감시반**

감시반. 정보팀의 쓸쓸한 표정. 이실장은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다.

질문지를 넘기는 손. 빠르게 움직이는 녹음기의 이퀄라이저.  
긴 질문에 짧게 답하는 황반장. 한 시간을 훌쩍 넘기는 벽시계.

**회의실**

질문지를 덮는 내사 1. 손목시계를 보며

**내사 1**

이렇게 빨리 끝내주실 거면서...  
양튼. 청문 결과 나올 때까지 일주일 간 직무정지입니다.

탁!탁! 파일을 정리하는 내사과들의 건조한 모습.

**내사 2**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황반장**

...

손을 뺀 황반장. 마이크를 잡고 몸 쪽으로 당기면 베이~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울린다.  
'응?' 내사과들 일제히 고개를 들면

**황반장**

감시대상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간첩도. 범죄자도 아닌 직장인. 두 딸의 아버지.  
그 때 우리가 한 일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심각한 인권침해였으며 직무수칙을 벗어난 월권행위였습니다.

안경을 벗는 내사 1. 짜증난 표정.

**내사 1**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대체...

**황반장**

아니.

니들이 우리 감정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말을 끊는 황반장. 단호한 목소리로

**황반장**

다들 그 때를 부끄러워하거든.

**109. 오피스텔. 낮**

빨래를 뒤집어 세탁기에 던져 넣는 하윤주. 제킷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면

[SJ 홀딩스 하윤주] 명찰.

명찰 뒤에 끼워진 종이를 펼치는 손. 필압이 남은 찢겨진 전화번호부.

**하윤주**

...

하윤주. [출근해] 세 글자를 길게 바라본다.

**110. 전동차. 낮**

출입구에 기대 선 하윤주. 시계를 보며 툭, 툭툭. 손잡이를 두드리는 손가락.

**안내(E)**

차간거리 유지를 위해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웅~ 속도를 줄이며 멈춰서는 전동차.

웅성대는 승객들. 시계를 보는 사람. 어딘가 전화를 거는 사람.

순간. 툭! 하윤주의 어깨를 치며 지나가는 비즈니스맨.

**하윤주**

???

멍해지는 하윤주의 표정.

전동차(기억의 재구성)

옆칸 문을 열고 등장하는 쇼핑녀. 그 위로 들리는 황반장의 목소리.

**황반장(OFF)**

싸가지가 사라지고 다시 감시대상을 돌아본다.

멀어지는 쇼핑녀를 보다 다시 황반장을 돌아보는 하윤주.

**황반장(OFF)**

뭐가 보이지?

노선표를 올려보는 황반장. 신문을 보는 대학생 다람쥐.

하윤주. 뭔가 기다리는 듯 날카로워지는 눈빛.

하윤주  
지금.

톡! 하윤주의 어깨를 치며 지나가는 사내. 하윤주. 고개를 돌리면

슬로우 모션 - [National Foods] 브로슈어를 보는 제임스. 휴대폰에 가려진 얼굴.

전동차(현재)  
터널을 빠져 나오는 전동차. 후두두두~! 쏟아지는 빗방울이 거세게 창을 두드린다.  
눈을 뜨는 하윤주.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하윤주  
봤어. 봤었어...

### 111. National Foods. 낮

부속~ 소파를 찢는 칼. 쿠션 밑에 쌓여있는 지폐와 채권다발이 보이고

손잡이. 전화기. 냉장고 등의 지문을 지우는 모습.  
휴지통에서 불타는 신분증. 휴대폰. 지도 등의 물건.

레인코트를 걸치며 시간을 확인하는 제임스.

### 112. 골목. 낮

하윤주. [National Foods] 간판을 보며 통화 중.

안내(E)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초조한 표정. 전화를 끊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우산을 쓴 거리의 행인들. 얼굴을 확인하기 힘들다.  
순간. 하윤주의 눈에 스치는 레인코트의 사내. 우산에 반쯤 가려진 제임스의 얼굴.

### 113. SJ 홀딩스. 낮

실장실에 들어오는 황반장. 이실장. 후~ 분을 참는 표정.

이실장  
언제적 일인데 청장 바뀔 때마다 지랄들이야?  
황반장  
지랄이야 늘 풍년이지...

썩썩히 웃는 황반장. 경찰뱃지를 꺼내 무게를 가늠하다 툭! 책상 위에 놓는다.

황반장  
이게 참 무거워... 그치?  
이실장  
후회 안 해? 김기자. 내가 만날 수도 있었잖아.

그 때 내가 했으면 형이 이 자리. 내가 거기.

잠시 생각하는 황반장. 갑자기 손을 내밀며

**황반장**

가위. 바위. 보!

반사적으로 손을 내미는 이실장. 황반장은 주먹. 이실장은 가위를 냈다.

**황반장**

봐. 똑같잖아. 남자는 주먹.

문을 닫고 나가는 황반장. 뒷모습에서 한 마디를 흘린다.

**황반장**

영결식 때 보자...

### 114. 거리. 낮

비가 쏟아지는 거리. 터벅.터벅. 길을 걷는 황반장 옆으로 지휘 밴이 멈춰 선다.  
위잉~ 뒷문이 열리고 어서 타라는 듯 고개짓을 하는 나무늘보.

**지휘 밴**

휴대폰을 켜는 황반장. [발신자 꽃돼지]로 부재중전화가 가득하고. '응?' 문자를 확인하면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끼이이익~! 급하게 유턴 하는 지휘 밴.

**실장실**

콧! 문을 박차고 나오는 이실장. 감시반. 정보팀들에게 소리친다.

**이실장**

전원 집합!!!

### 115. 골목. 낮

제임스와 거리를 유지하며 쫓는 하윤주. 휴대폰이 진동하면 [발신자 송골매].

**하윤주**

반장님! 제가 지금...

**황반장(E)**

됐고. 지금 어디야?

**지휘 밴**

황반장. 다급한 표정.

**하윤주(E)**

이태원입니다. 768 A에서 언덕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황반장**

가고 있어. 쫓만 버텨!

### 116. 통제실. 낮

스피커에 울리는 황반장의 무전.

**황반장(E)**

현 위치 이태원. 768 A에서 언덕 방향으로 진행.  
다들 준비됐어?!

잠시 망설이는 이실장. 직접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잡으며

**이실장**  
시작하자.

자리에 앉는 통제실. 정보팀들. 탁! 탁! 탁! 통제실 기계들. 모니터들이 하나 둘 켜진다.  
부양~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감시반의 차량들.

### 117. 레스토랑. 낮

구석진 자리. 제임스와 외국인 한 명이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밑에서 봉투와 돈가방을 주고받는 손.

출구 쪽 자리에 앉은 하운주.  
휴대폰 문자를 찍으며 가게를 나가는 외국인과 남아있는 제임스를 살피고

-791 C 골목. BEE 레스토랑.  
-5분 안에 도착. 조심할 것.

봉투를 열어보는 제임스.  
[James Jin]이라 적힌 위조여권과 달러몽치. 외국계 은행의 통장, 빛 바랜 은색 리볼버가 보인다.  
제임스. 봉투를 품에 넣으며 주변을 살피는 눈. 홀로 앉은 하운주가 눈에 띄면

가볍게 스치는 두 사람의 시선.

뚜벅! 뚜벅! 다가오는 발소리. 태연한 표정으로 휴대폰에 문자를 찍는 하운주.

### 118. 지휘 뱅. 낮

정체된 도로 위.

**이실장(E)**

전원 그 쪽으로 가고 있어. 예상 시간 10분.

**황반장**

너무 늦어. 여기 길도 꼭 막혔고.

무전기를 내리며 문자를 확인하는 황반장.

-노출된 거 같다.

### 119. 레스토랑. 낮

하운주를 내려 보는 제임스.

**제임스**

우리 만난 적 있죠?

**하윤주**  
네?

고개를 드는 하윤주. 통화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

**지휘 밴**  
전화를 받는 황반장.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제임스(E)**  
낮이 많이 익어서요.

**하윤주(E)**  
글쎄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휴대폰에 울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

별걱! 차에서 내려 빛속을 달리는 황반장.

**레스토랑**  
슬며시 자리에 앉는 제임스. 하윤주를 뚫어져라 보며

**제임스**  
정말 만난 적 없어요?

귀엽게 인상을 구기는 하윤주. 까칠한 목소리로 답한다.

**하윤주**  
네. 오늘 처음 뵈는 거 같은데.

**제임스**  
처음 봤다...

웃차림.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 무릎 위 봉투 등 제임스를 훑는 하윤주의 눈. 슬쩍 눈을 내려 뒤집힌 휴대폰을 보는 제임스. 서로를 탐색하는 시선.

**제임스**  
내가 착각한 건가?

**하윤주**  
그러실 수도.

슬쩍 눈을 내리는 하윤주. 테이블에 세팅된 날카로운 스테이크 칼을 보면 웃음이 사라지는 제임스. 손을 뻗어 비뚤어진 칼을 가지런히 놓는다.

**제임스**  
왜 날 따라다니는 거지?

뻘뻘 쳐다보는 제임스. 생각을 읽을 수 없는 표정.

**하윤주**  
따. 라. 다. 녀. 요?

어이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하윤주.

**하윤주**  
혈~ 내가 스토커? 아저씨 무슨 병 있어요? 왕자님?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황반장. 빗물을 털며 후문 옆 테이블에 앉고

**제임스**

???

벼룩시장 - 제임스의 기억. 거울 속 사람들 사이로 스치는 황반장의 모습.

제임스. 끌어버리는 얼굴.

하윤주

계속 계속 거예요? 슬슬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제임스

...

하윤주를 노려보다 창 밖을 보는 제임스. 행인들 모두가 의심스럽다.  
똑! 똑! 노크하듯 테이블을 두드리는 하윤주. 재촉하듯 제임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하윤주

아저씨?

제임스

미안. 오해였나 봐요.

일어서는 제임스. 황반장을 스치며 후문으로 나가고  
'후-' 짧게 한숨을 쉬는 하윤주. 휴대폰을 들고 황반장을 본다.

하윤주

십 년 감수 했어요.

황반장(E)

놓이 더 놀란 거 같은데? 우산도 놓고 갔잖아.

의자에 걸려 있는 제임스의 우산.

황반장

내가 말을 테니까 지휘 뱅으로 가.

하윤주(E)

댁으세요. 안경.

'응?' 빗물이 맺힌 안경을 보는 황반장. 씨익~ 웃으며 후문으로 나간다.

## 120. 복도. 낮

불 꺼진 복도. 안경을 닦으며 조용히 무전을 보내는 황반장.

황반장

송골매가 그림자를 쫓는다.

바 땀에 지랄 맞으니까 지원 서둘러 줘.

도심도로

빗길을 뚫고 달리는 감시반. 검거팀 차량의 교차.  
무전을 듣는 독사. 원숭이 등의 긴장한 표정.

복도

황반장.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내려진 스위치. 구석에 버려진 잡지더미를 차례로 본다.

레스토랑

짐을 챙기며 일어서다 문득. 돌아보는 하윤주. 테이블 위 스테이크 칼이 사라졌다.

하윤주

???

**복도**

획~! 어둠에서 튀어나오는 제임스. 반사적으로 피하는 황반장. 목을 날카롭게 스치는 칼날.

**황반장**  
으!

다시 파고드는 칼날을 움켜쥐며 제임스의 멱살을 쥐는 황반장.

이어지는 격렬한 몸싸움. 와르르 무너지는 박스들. 바닥을 구르는 칼과 황반장의 안경.

황! 제임스를 벽에 밀치는 황반장. 제임스의 등에 스위치가 눌리며 복도가 밝아지고  
총을 꺼내 겨누는 제임스. 퍽! 총구를 허공으로 쳐내는 황반장.

**레스토랑**

후문으로 달리던 하윤주. 탕! 날카로운 총소리에 멈칫하다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복도**

파바박~! 스파크를 일으키는 형광등.  
황반장을 겨누는 제임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면 콧! 실린더를 움켜쥐는 황반장.

탁! 탁! 실린더가 헛돌며 격발이 안 되는 총.  
검박이는 형광등 아래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

퍽! 퍽! 황반장의 얼굴을 가격하는 제임스.  
황반장. 휘익~ 제임스의 팔을 꺾으며 바닥으로 쓰러지면  
총을 놓치는 제임스. 옆에 놓인 칼을 집어 황반장의 배를 찌르기 시작한다.

## 121. 통제실. 낮

스피커에 울리는 신음소리. 당황한 이실장. 시계를 보며 소리친다.

**이실장**

13 시 07 분. 나무늘보 무장 허가!!!

캡션 기능을 통해 모니터에 찍히는 이실장의 무전.

-13 시 07 분. 나무늘보 무장 허가.

지휘 밴의 나무늘보. 글로브 박스를 열어 휴대용 금고 속 리볼버를 꺼낸다.

## 122. 복도. 낮

복도를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 총을 짚는 제임스. 어둠으로 사라지고  
황반장. 목을 움켜쥐며 쫓아가다 피가 고인 바닥에 미끄러진다.

**하윤주**  
반장님!!!  
**황반장**  
침착해...

달려오는 하윤주를 막는 황반장. 몸을 일으켜 복도 한 쪽을 가리키고

**황반장**

먼저 가. 쫓아가... 쫓아가...

하윤주. 지혈할 것을 찾는 분주한 손.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진다.  
황반장. 하윤주를 거칠게 밀며

**황반장**

쫓아가!!!

얼굴을 아는 건... 너랑 나 밖에 없어... 가! 어서 가!

망설이는 하윤주와 단호한 표정의 황반장. 길게 바라보는 두 사람.

**황반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돼!

황반장. 희미한 미소를 보이던 눈시울이 벌개지며 고개를 끄덕이는 하윤주.

### 123. 거리. 낮

골목을 빠져 나오는 하윤주. 무섭게 집중하는 표정.  
우산을 쓴 수많은 행인들.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

**하윤주**

!!!

순간. 우산 사이로 보이는 사내의 뒷모습. 레인코트로 비를 막으며 달리고 있다.

휴대폰을 찾는 하윤주. 인상을 구기다 사내를 쫓기 시작하고

**복도**

벽에 기대 걸어가는 황반장. 바닥에 떨어진 하윤주의 휴대폰을 본다.

**황반장**

꽃돼지가 그림자를 쫓고 있다. 지원이 필요해...

### 124. 통제실. 낮

고개를 숙인 통제녀. 통제남. 이실장. 애써 침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이실장**

구급차가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황반장(E)**

바보같이 당했어...

**이실장**

그래 계속 얘기해.

### 125. 거리. 낮

계단을 달리며 사내를 쫓는 하윤주.  
몸을 웅크린 사내. 내려오는 노신사와 부딪히던

레인코트를 내리며 공손히 부축하는 사내의 얼굴. 제임스가 아니다.

당황하는 하윤주.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고

**하윤주**

바보 같이...

**복도**  
비틀비틀 출입구로 걸어가며 중얼거리는 황반장.

**황반장**  
찾을 수 있어. 반드시 찾아야 해...

**거리**  
순간.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며 서서히 잦아드는 빗줄기.  
천천히 고개를 드는 하운주.

하나 둘. 우산을 접는 행인들. 점점 넓어 지는 시야. 멀리 보이는 제임스의 뒷모습.

**복도**  
복도로 달려 들어오는 나무늘보. 황반장의 상처를 지혈하며

**나무늘보**  
출혈이 심하다. 경부대동맥 손상. 복부 자상 여러...???

투둑~! 바닥에 떨어지는 잡지책. 여기저기 보이는 칼 구멍.  
나무늘보를 밀치는 황반장. 복도 밖으로 걸으며 무전을 보낸다.

**황반장**  
송골매다... 감시반. 현재 위치보고!

빠른 비트의 음악이 시작되며  
거리를 걷는 제임스와 멀리서 뒤쫓는 하운주. 머리 위 감시카메라를 의식하는 두 사람.  
뒤이어 울리는 감시반의 응답들.

**두더지(E)**  
두더지. 754 A 도착.  
**타조(E)**  
타조. 독사. 743 B 도착.

### 126. 거리. 낮

비틀비틀 거리로 나오는 황반장. 주위를 둘러보며

**황반장**  
꽃돼지...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림자. 키 185 근방. 베이지색 레인코트. 총을 소지하고 있다.  
건물 후문부터 동선 예측하고 발견 즉시 보고해!

구급요원들. 황반장을 부축하며 지혈을 시작한다.

**황반장**  
지도... 지도!!!

나무늘보. 지도몽치를 들고 올라타면 부양~ 출발하는 구급차.

### 127. 통제실. 낮

삐~ 램프가 켜지는 핫라인 전화.  
통제남에게 달려가 수화기를 건네 받는 이실장. 단호한 목소리.

**이실장**

지금부터 모든 결정은 저. 이영숙 총경.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향후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구요. 됐죠?

굉! 전화를 끊으며

**이실장**

감시반. 경거탐. 4인 1조로 송골매 지시를 따른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CCTV 서버가 연결된 메인 컴퓨터에 앉는 송팀. 빛의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모니터 - 서울시 지도 위에 뜨는 수천 개의 감시카메라 불빛.

마우스를 돌려 구역을 특정하는 송팀.  
큭! 엔터 버튼을 누르면 거리의 CCTV 화면이 감시반의 모니터로 전송된다.

**128. 구급차. 낮**

달리는 구급차 안. 황반장. 안정제를 주사하려는 구급요원을 막으며 무전기를 들고

**황반장**

찾았어?

**송팀(E)**

찾고 있습니다!

**황반장**

못 찾으면 너무더 죽을 줄 알아!

홍분한 황반장. 구급요원에게 소리친다.

**황반장**

뭐해? 이것 좀 째어!!!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쿡! 쿡! 목의 상처를 봉합하는 구급요원.

**통제실**

모니터를 보며 소리치는 정보팀들. 지도 위에 동선을 표시하는 송팀.

**정보 1**

찾았습니다. 진성빌딩 앞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서쪽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정보 2**

370 A 횡단보도 서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모니터 - 지하철 역으로 들어가는 제임스. 하운주의 뒷모습들.

**구급차**

무전기에 울리는 송팀의 목소리.

**송팀(E)**

삼각지역. 지금 12번 출구로 들어갑니다.

나무늘보를 보는 황반장. 단호한 표정.

**황반장**  
차 돌려!

끼이이익~! 유턴을 하는 구급차.

### 129. 삼각지역. 낮

전동차가 도착하는 4호선 승강장. 타고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우두커니 서있는 제임스. 하윤주. 잠시 망설이다 먼저 전동차에 올라타면

**안내(E)**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하윤주의 시점 - 창 밖으로 보이는 제임스. 갑자기 몸을 틀어 기동 뒤로 사라지고

**하윤주**  
!!!

하윤주. 통화 중인 남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닫히는 문 틈으로 튀어 나온다.

**관제실**  
별걱!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황반장과 나무늘보.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을 보며 잠시 난감한 표정.

**황반장**  
12번 출구 카메라부터 시작합니다.

끄덕이는 관제남. 화면을 리와인드 시킨다.

역사 곳곳으로 흩어지는 감시반과 검거팀들 주변을 살피며 무전을 보내는 모습.

### 130. 통제실. 낮

삼각지역 설계도에 X 표시를 하는 송팀. 점점 늘어가는 표시들.

**송팀**  
역을 벗어난 거 아닐까요?

이실장.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면 빠리리~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 외선 전화를 받는 통제너.

**통제너**  
에스제이 출딩스입니다.

### 131. 폐쇄된 승강장. 낮

삐그덕~ 녹슨 철문이 열리면 어둡고 가파른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있다. 통화 중인 하윤주. 긴장한 표정.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하윤주**  
삼각지역 4호선...

**통제실**

스피커에 울리는 하윤주의 목소리. 신호가 약한 듯 치직~ 잡음이 섞인다.

**하윤주(E)**  
북... 로로 ...면 ...에 ...문  
**이실장**  
꽃돼지! 잘 안 들려. 다시 말해!

### 132. 관제실. 낮

황반장. 창백해진 얼굴. 무전기에 울리는 목소리에 집중하고

**하윤주(E)**  
북... 환... 로로 ...면 막... 른 ...에 철...

잡음이 심해지다가 전화가 끊기면 지하철 설계도를 펼치는 황반장. 도면 곳곳을 빠르게 훑는 눈.

툑, 툑,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도.  
북쪽구역 도면 한 쪽에 보이는[폐쇄] 문자. 밑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그려져 있다.

**황반장**  
북쪽... 막다른... 철문?

무전기를 드는 황반장. 도면을 다시 확인하며

**황반장**  
4호선 승강장. 북쪽 환승로 끝에 철문이 하나 있다.  
그 밑으로 안 쓰는 승강장이 있어. 3조, 5조. 달려!

황반장. 손을 내밀면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리볼버를 꺼내는 나무늘보.

### 133. 폐쇄된 승강장. 낮

거미줄이 감긴 감시카메라. 꺾박이는 형광등. 벽을 타고 흐르는 곰팡이들.

긴장한 표정의 하윤주. 텅 빈 승강장. 제임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쿵!쿵!쿵! 뒤편 계단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한다.

하윤주. 계단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입을 막으며 몸을 낚아채는 손.

**하윤주**  
!!!

계단을 빠져 나오는 원숭이. 독사와 검거팀. 주변을 살피면

인적 없는 황량한 풍경. 하윤주는 보이지 않는다.

기둥 뒤 좁다란 공간. 벽에 바짝 붙은 제임스. 하윤주의 입을 막고 양팔을 단단히 붙잡은 모습.

**하윤주**  
음. 음.

하윤주. 포박된 손을 빼려 버둥거리다 발치에 떨어진 녹슨 캔을 본다.

**134. 통제실. 낮**

치이이~ 무전이 끊긴 듯 스피커에 울리는 잡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실장. 초조한 표정.

**환승통로**

승객들을 제치며 달리는 황반장. 치이~ 역시 무전기에 울리는 잡음.

**황반장**

씨발...

**135. 폐쇄된 승강장. 낮**

기동 앞에서 멈추는 검거팀. 하윤주를 보지 못하고 돌아서면  
다급해진 하윤주. 한 손을 빼 뒤를 더듬다 제임스의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잡는다.

푹! 제임스의 허벅지를 찌르는 만년필.

제임스가 주춤하는 사이 다리를 뺨어 캔을 건어차는 하윤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선로에 떨어지는 캔.

철컥! 철컥! 뒤돌아 총을 겨누는 검거팀. 기동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하윤주와 제임스.

우웅~ 터널 끝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선로를 비추는 전동차의 불빛이 다가온다.

**제임스**

물려서.

경고하듯 총구를 하윤주의 관자놀이에 누르는 제임스. 바람에 휘날리는 하윤주의 머리카락.

점점 밝아오는 전동차의 불빛. 굉음이 커지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검거팀장. 망설이는 표정.  
순간. 휘익~ 검거팀 쪽으로 하윤주를 밀치고 선로로 몸을 날리는 제임스.

빠앙~ 제임스를 덮치며 떨어지는 전동차.

선로로 뛰어내리는 감시반과 검거팀. 어디에도 제임스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터널로 몸을 돌리는 검거팀장. 검거 1의 총을 받아 랜턴으로 터널을 비추면

떨어지는 제임스의 실루엣.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하윤주. 제임스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다.

**136. 터널. 낮**

어두운 터널에 울리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

제임스의 시점 - 지상으로 뻗은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이 밀려 들어온다.

점점 밝아오는 제임스의 얼굴. 순간. 뭔가를 느낀 듯 멈춰서면

터널 끝. 작은 점으로 보이는 실루엣. 터벅. 터벅. 선로에 올라서는 황반장.

스윙~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서며 뒤를 돌아보는 제임스.

어둠에서 울리는 발소리와 흔들리는 랜턴 불빛.

#### 통제실

모니터를 보며 당황하는 이실장. 선로 위에 반짝이는 붉은 점.

#### 이실장

송골매! 거기서 뭐 하는거야?! 검거팀이 가고 있어 당장 내려와!!!

#### 선로

터널을 막아선 황반장. 어둠을 바라보며

#### 황반장

여대 강의 중에 있었던 일이야.  
평소 존경 받는 노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지...

#### 터널

빛을 향해 달리는 하윤주와 멀찍이 뒤쫓아오는 검거팀의 랜턴 불빛.

#### 황반장(OFF)

“인간의 신체기관중 특정 조건에서 6 배 이상 커지는 건 뭘까?”

터널을 달리는 검거팀. 원숭이. 독사.

#### 황반장(OFF)

그러자 학생 한 명이 발끈해서 일어났지.  
“이건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승강장 곳곳의 감시반들. 황반장의 무전을 들으며 달리는 모습.

#### 선로

스윙~ 터널 속 어둠을 향해 총구를 드는 황반장. 초점을 맞추려 미간을 찌푸리면

황반장의 시점 - 안경이 없어 흐릿한 시야. 어둠에 묻힌 터널.

#### 황반장

노교수는 말했어.  
“학생, 뭘 상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질문의 답은 동공이야.”

#### 터널

제임스. 총을 겨누는 황반장과 점점 다가오는 랜턴 불빛을 번갈아 본다.

순간. 빠앙~ 멀리 황반장의 뒤로 달려오는 회선열차의 모습.

#### 선로

계속되는 경적에도 피하지 않는 황반장. 어둠을 노려보는 눈. 증얼거리는 입.

#### 황반장

사람의 눈동자는 어둠을 만나면 더 커지고 예민해지거든...

천천히 총을 드는 제임스. 어둠 밖으로 나오는 은색 총구가 빛을 받는다.

또렷해지는 눈빛. 어둠에서 번쩍이는 총구를 보는 황반장.

#### 황반장

!!!

탕! 탕! 동시에 불을 뿜는 황반장과 제임스의 총구.  
빠얏~ 경적을 울리며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열차.

선로 옆으로 쓰러지는 황반장. 거센 바람에 인상을 쓰다 터널로 고개를 돌리면

황반장의 시점 - 제임스를 덮칠 듯 달려가는 열차.

터널

열차와 마주선 제임스. 총구를 내리면 손등 위로 붉은 피가 흘러내린다.

제임스

...

순간. 비틀. 균형을 잃으며 선로 밖으로 쓰러지는 제임스.  
빠르게 지나가는 회선열차의 불빛이 제임스의 얼굴 위로 스치고

흐릿한 눈동자. 지친 표정의 제임스. '후~' 마지막 숨을 토하며 고개를 떨군다.

굳어버린 제임스를 바라보다 터널 밖 황반장을 돌아보는 하운주. 씩씩한 표정.

제임스를 둘러싸는 검거팀들의 부감.

선로

황반장. 역시 씩씩한 표정. 터널 안 하운주에게 고개를 끄덕여주면

뚜벅. 뚜벅. 어둠에서 걸어 나오며 독사가 건네는 무전기를 잡는 하운주.

### 137. 통제실. 낮

스피커에 울리는 하운주의 무전.

하운주(E)

그림자를 잡았습니다.

이실장. 마이크를 들고 녹음기 앞에 서며

이실장

작전종료. 전원 복귀할 것.

쿵! 직접 정지 버튼을 누르고 '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인다.

탁! 탁! 불이 꺼지는 모니터와 기계들. 통제실을 나서는 요원들의 모습.

승강장 곳곳의 감시반들. 하나 둘 사람들에 섞이기 시작한다.

선로

덜썩! 황반장의 옆에 앉는 하운주.

인상을 찡그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두 사람. 어느새 닳아진 표정.

황반장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통제실

뚜벅! 뚜벅! 메인 모니터로 걸어가는 이실장.

들출된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면 드르륵~ 차례로 벽이 접히기 시작하고

선로  
느리게 흘러가는 구름. 그 위로 들리는 황반장의 목소리.

**황반장(OFF)**  
나사 풀린 꽃돼지가  
마늘과 숙을 드시고 꽃사슴이 되는 이야기지...

통제실 창 밖으로 드러나는 서울의 빌딩 숲. 한 벽 가득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황반장(OFF)**  
이건 실화야.

### 138. 국립묘지. 낮

탕! 탕! 맑은 하늘에 울리는 의장대의 예포 소리.  
경찰제복차림의 황반장과 하윤주. 이실장, 송팀, 동료들의 담담한 표정.

다람쥐의 영정사진. 밝게 웃는 얼굴 위로 탕! 마지막 예포가 울리고

지휘 뱅으로 걸어가는 황반장. 무전기 들고 힘주어 말한다.

**황반장**  
2012년. 11월 27일. 서울 경찰청 장재웅 경감. 영.면.

애앵~ 무전기 부저를 누르는 손.

다람쥐의 영정을 바라보는 황반장과 하윤주. 잠시 흔들리는 눈빛.

### 139. 도심 곳곳(교차). 낮

빠른 비트의 음악과 함께 부감으로 소개되는 서울의 봄.

건물 계단. 달리는 택시 안 등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지켜보는 감시반들.

도심 인파 사이로 보이는 사내.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골목에서 등장하는 하윤주. 유난히 긴 머리.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하이힐. 핸드백.  
멀리 마주오는 사내를 보며 통화를 하는 척.

**하윤주**  
맞선애 더치페이가 뭐래? 대기업에 외제차면 뭐해?  
키도. 얼굴도. 매너도 완전 혈~~~

완벽한 된장녀 하윤주. 설새 없이 수다를 떨다 빼긋~! 힐을 꺾으며 바닥에 쓰러진다.

**하윤주**  
어맛!  
사내  
???

잠시 하윤주를 내려보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사내.  
하윤주. 순간. 날카롭게 변하는 눈빛. 한층 노련해진 느낌.

**하윤주**  
타겟 확인. 타겟 확인.

**지휘 밴**  
지도를 보던 황반장. 무전기를 들며 웃는다.

**황반장**  
몇 프로?

**골목**  
가발을 벗는 하윤주. 나머지 힘을 쥐어 버리곤 골목을 달리기 시작하고  
지도보드에 붙어있는 사슴모양 자석. 그 위로 이어지는 하윤주의 목소리.

**하윤주(OFF)**  
백프로 일치 합니다.

화면 압전. 음악이 커지며 엔딩 크레딧이 시작된다.

終